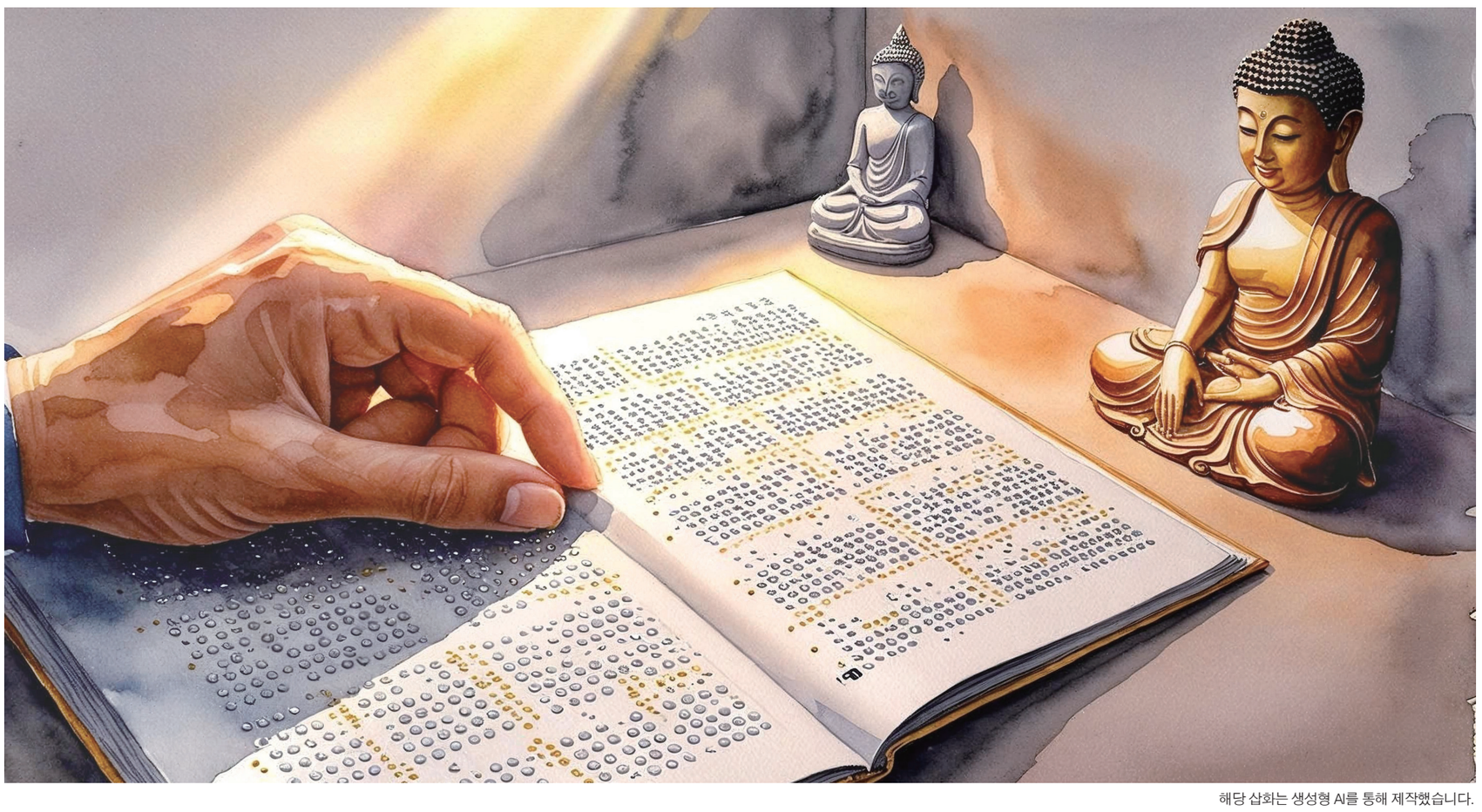
진정한 무장애, 차별 없는 마음서 시작된다

전문가 제언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4월은 장애인권 실천이 집중되는 달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주인이 되는 활동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복지현장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서비스 실천과 제도 변화에 집중하는 사회복지사이자 불자로서 올 4월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고립과 좌절의 어두움이 깊어진 이 시대, 소외된 분들을 위해 가까운 사찰에서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리며 돌아본 우리 불교의 장애에 대한 포용과 평등한 자비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기를 서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르침은 단지 이념이나 철학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즉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는 공간을 만드는 노력은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외국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불교의 공간과 가르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사찰 구조를 돌아보면 그 안에는 오르기 어려운 높은 계단,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문턱, 시각 안내가 부족한 공간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와서 설법을 듣고 기도하고 머물 수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입구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전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언제나 시대와 호흡해 왔으며 새로운 문제에 지혜롭게 대응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배제와 소외'의 문제에 대해 불교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장벽 없는 자비'일 것이다.

다행한 것은 최근 많은 사찰들에서 마련 중인 무장애 접근에 대한 실천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법당, 점자불경 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법회 등은 '무장애 불교'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컨대 서울 조계사는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점자 안내판을 갖추었고 일부 법회에는 수어 통역도 지원합니다. 전북 김제 금산사와 강원 평창 월정사 역시 주요 전각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시설은 단지 '편의' 제공이 아닌 불교의 자비 사상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구조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무장애 종교공간 확대를 위한 정책이 일부 마련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에도 무장애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찰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무장애 인식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언제나 중생과 함께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사찰의 전각은 더 이상 전통의 상징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배리어프리는 이제 단지 건축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사찰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며, 이는 곧 불교가 지향하는 자비의 구현이자, 현대적 장애인 복지와 맞닿는 지점입니다.

불교는 본래부터 장애를 이유로 수행자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지닌 분들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시각장애를 지닌 아나율존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그 길 위에서의 평등은 실천적 자비로 구현되었습니다.

불교는 시대와 호흡해 온 종교
구조변화와 마음가짐 전환 요구

장애인도 능동적 기도 수행하고
공동체 이끌어 가는 주체적 존재

불교 도량은 이들 응원하는 공간
사회적 소외 넘어 수행길 열어야

한 시각장애 불자는 점자 불경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부처님이 나에게도 법(法)을 전하신다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청각장애 불자는 수어 통역을 통해 "이제야 법음(法音)이 내게도 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동은 사찰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같은 길 위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무장애 종교 활동에 대한 의식이 아직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시민이 배리어프리를 '특수한 사람을 위한 배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애인의 종교활동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장애인도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종교는 이 주체성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접근성과 평등한 참여권의 보장입니다.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주체입니다. 수행에 참여하고 법문을 듣고 때로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도량이란 이들의 주체적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응원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그 안에서 누구나 안심(안도)하고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불자, 손으로 법구를 만지는 시각장애인, 수어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청각장애인, 이들은 모두 부처님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무장애는 물리적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차별 없는 마음의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일찍이 깨우쳐주신 주신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즉,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라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의 첫 번째 가르침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진정한 자비의 도량이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그곳은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언어가 달라도 누구나 함께 법을 듣고, 기도하며,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불교는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해왔습니다. 이제는 장애와 사회적 소외를 넘어서는 수행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길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날, 불교의 자비는 더없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최종환 관장은…조계종 총무원 사회과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및 본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사)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종정대행)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원로원장 혜윤 조허(금강사)
종회의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교육원장 설산 능인(보광사)
규정원장 일초(상주 연화사)
고시원장 자혜 수봉(대광사)
호법원장 덕현(성현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 화 원 장 일락(중산정사)
총무부원장 선행
포교부원장 혜원
교육부원장 법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